상생과 화합의 지혜 얻는 날

자연과 인류, 상생의 존재

진제 대종사
조계종 종정



일과명주(一顆明珠)를 아는 이가 이 세상에 몇몇이나 될고.

우리 부처님께서 일과명주를 뚜렷이 증득(證得)하여 도솔천에 계시다가 사바세계에 인연(因緣)이 도래하여 백상(白象)을 타고 마야부인의 태중(胎中)에 잉태(孕胎)하여 열달만에 우협(右脇)으로 출태(出胎)하심이라.

즉시 일곱 걸음 걸으신 후,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또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제일기(第一機)의 법(法)을 베푸시니,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높음이라' 하심이여.(天上天下 唯我獨尊)

고금(古今)을 통하여 이를 지나갈 성인(聖人)이 있으리오.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모든 인류시여! 합장예경(合掌禮敬)합시다.

그러나 자세히 점검컨대, 다리아래 삼척(三尺)이로다.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독특한 안목(眼目)으로 진리(眞理)를 제시하고 세세생생(世世生生) 밝아 있는 것은 오직 불교(佛敎)의 진리(眞理)뿐이라.

오늘은 부처님께서 대자대비(大慈大悲)로 무명(無明)의 사바세계에 지혜(智慧)의 광명(光明)으로 강탄(降誕)하신 날입니다. 차별 없이 일체중생을 교화(敎化)하니 지옥문도 사라지고 유정(有情)들도 무정들도 법열(法悅)로 가득하니 시시(時時)가 호시(好時)이고, 일일(日日)이 환희가 충만한 날입니다.

온 지구촌이 거년(去年)부터 코로나 질병으로 죽음의 공포와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인간우월적 사고(思考)'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연과 인류(人類)는 상생(相生)하는 존재입니다. 이 자연은 우리의 조상들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보존하기를 기원(祈願)하며 물려준 것이며, 또한 우리도 미래의 후손에게 온전(穩全)하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으로 자연과 인간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계기(契機)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류시여! 부처님 전에 등공양(燈供養)을 올려서 다생의 업(業)을 소멸하고 무량(無量)의 복덕을 받으소서.

필경(畢竟)에 일구(一句)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파유조수부득(一把柳條收不得)해서
화풍탑재옥난간(和風搭在玉欄干)이로다
한 주먹 버들가지 잡아 얻지 못해서
봄바람에 옥난간에 걸어 둠이로다.

진리에 감응하는 세상을

경정 정사
진각종 총인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내가 가장 존귀하다 하시고 지금 그처럼 부처님이 오시는 날

뭇 중생은 한 몸이라 사자후 한 소리, 내일도 부처님 오실 날, 뜻 모아 받들면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오십니다.

연등달아 불 밝혀서 초파일을 봉축하고 사람마다 마음 밭에 부처 씨앗 가꾸어서 슬기가 움 틔우고 자비가 싹을 돋우면 저이도 사랑스럽고 나도 자랑스러워서 아프고 괴로워도 삶의 기운 솟아납니다.

세상살이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들거늘 쉬운 일 즐거운 인생 그냥 있지 않습니다. 낮과 밤 쉴 틈 없이 과학기술 일으키고 엄청난 생존경쟁 살아남아 미소 지으려면 앞집 뒷집 이웃도 마음에 품고 정진합시다.

눈뜨면 세상살이 이것저것 달라보여도 안으로 눈을 돌려 그 바탕을 살피면 하나가 여럿으로 여기저기 빛을 내고 그 빛이 다시 뭉쳐 결 맞추어 장엄하니 주객 노사 여야의 갈등은 어울림의 소식입니다.

집착과 어리석음을 떨쳐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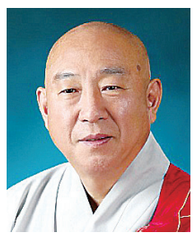


오늘은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동안 우리 민족은 한량없는 기쁨으로 이 날을 찬탄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큰 뜻과 우주법계(宇宙法界)에 가득한 자비광명을 찬탄하고 또 찬탄합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극심한 병고(病苦)를 앓고 있습니다. 신종감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된 지 벌써 일 년 수개월의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질병의 고통은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국의 불자 여러분, 그리고 이 봉축법요식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뜻깊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비록 힘드시더라도 모두가 환희로운 마음을 가득 담아 이웃과 함께 염화미소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매일 부처님오신날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오늘 하루만 부처님오신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부처님오신날이고, 오늘 하루만 연등을 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연등을 켜는 마음으로, 부처님같이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오신날의 진정한 뜻이니까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선 가장 먼저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을 떨쳐야 합니다.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참 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참 나'와 '참 나'들이 하나로 모여 공생(共生)과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연등을 밝히고, 부처님오신날을 축제로 기리는 것도 바로 그러한 삶의 다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처님오신날을 이렇게 조촐하게 봉행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밝힌 등불은 그 어느 해보다 밝고 환하게 빛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불빛의 힘으로 코로나19를 하루 빨리 극복해 평화롭고 안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리라 여깁니다.

삼라만상이 길상의 시현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오늘은 부처님오신날, 삼천대천 세계에 꽃향기 가득하고 일체중생의 마음에 환희가 솟구치는 축복의 날입니다. 이 기쁜 날을 봉축하며 사람마다 연등을 밝히고 거리마다 오색 등을 내걸었으니, 이미 우주 법계는 진리의 본체요 삼라만상이 길상의 시현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 19' 질병과 경제불황으로 고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부처님의 청정한 가르침은 병마를 극복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불자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코로나 19'의 소멸을 기원하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청정 일심을 유지한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은 돌아올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의 등불이 하염없이 밝았듯이, 오늘 우리가 밝히는 봉축의 연등도 오래도록 꺼지지 않고 모든 생명의 건강과 평화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평등 실현으로 공업 소멸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지난 1년간 전 세계는 인류가 공동으로 처한 방역과 경제의 대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 노력에 온 힘을 모았으며 그 결과 이제 그 끝이 조금 보이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종착지를 앞두고 희망의 결실을 사유화하려는 일부의 지나친 경쟁과 이기적 행태는 또 다른 갈등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 코로나19사태는 탐진치에서 비롯된 이기의 인연을 누겁 동안 쌓아 온 공업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유일한 해법은 대지혜로써 완전한 자비와 평등의 이치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구현해내는 것 뿐입니다. 일체 세간 모든 현상은 모두가 다 부처님의 설법이므로 지금의 고난은 참회의 거울이자 서원의 깃발입니다. 정진의 높은 고개를 바로 넘는다면 나눌수록 불어나고 함께할수록 깊어지는 기적을 현실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 실천이 바로 봉축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지금 이 세상은 움직이되 움직이지 못하고, 만나되 만나지 못하는 소위 언택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나친 욕심으로 환경과 생태계가 무너지고, 미생물과 무생물이 살아가야 할 영역까지도 거침없이 간섭하면서 오히려 인간 사회는 자유가 통제되고 인격이 마비되어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생태계도 마비되고 있습니다.

불기256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우리는 탐심을 내려놓고, 사람의 편의에 의한 지나친 생태계의 간섭을 피해야 합니다. 합리적 불편은 사람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불기2565년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의 실천이 바로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밝히면 어둠 사라져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불자여러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먼저 나의 마음을 밝히고 세상의 어둠을 거둬내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미 비로자나부처님임을 믿고 현세정화(現世淨化)의 길을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천은 스스로 어둠을 밝히는 지혜광명이 되는 것이며, 타인들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은 비로자나부처님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안팎이 하나의 비로자나부처님의 광명 지혜가 될 때 현세정화의 길은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현실의 어둠을 밝음으로 바꿔 비로자나의 맑고 깨끗한 광명이 나타나도록 우리 불자들이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부처님의 법음을 잇고 실천하는 모든 불자 여러분에게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신력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이 부처인 줄 알라

지허 대종사
태고종 종정



부처님은 본래 가는 일도 없고 오는 일도 없고 또한 머무르는 일도 없습니다. 하늘 땅을 나누기 전에 있었고 우주가 생기기 전에 있었습니다. 태어난 일도 죽은 일도 없으니 사월 초파일에 탄생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이 태어나면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는 고통을 끝없이 이어가야 하는 현상을 보고 이를 불쌍히 여겨 구제하여 모두가 부처 되게 하고자 사바세계에 오셔서 마야 부인 어머니에게 태어난 인연을 사월 초파일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생노병사를 통하여 부처님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이를 따라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이 되는 까닭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은 천백억 화신입니다. 오늘 태어난 부처님 외에도 천백억의 몸이 있습니다. 중생을 부처님이 되게 하기 위하여 무수한 몸으로 변화하여 무량중생을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월 초파일의 사부대중들이여. 일체 중생들이여.

부처님은 우리 마음이 부처님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이 부처인 줄 알면 부처님이 부처님으로 보이고 부처님의 법문이 끝없이 들립니다.

소박한 삶에 평안의 길이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모든 생명의 존귀함과 대자대비의 실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외치신 거룩한 가르침이 고통과 혼란의 이 시대에 더욱 빛이 납니다.

자신을 바로 보고 깨닫는 것에서 부처님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며 지혜로운 마음에서 희망을 보고 자비의 실천으로 치유의 길을 갑니다.

꿈속의 일들이 깨고 나면 허망하듯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중생의 삶 속에 자기보다 먼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이 그대로 목표이니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욕망의 추구보다 소박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데에 해탈의 평안한 길이 있습니다.

칭찬은 치유 묘약입니다

법공 정사
불교총지종 종령



부처님오신날,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사바세계에 나투신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중생들의 삶의 고통을 멸하여서 마음 속에 영원한 불국토를 건설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고통을 멸하여 심청정(心淸淨) 불국토를 이루고자 함은 부처님의 근본 교설이자 불교의 요체(要諦)라 할 수 있습니다.

가히 불교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苦)의 소멸은 부처님의 출가 동기이자 사성제, 팔정도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통의 소멸은 우리 중생들의 삶에 있어서 지난(至難)한 숙제이자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의 실천으로써 고(苦)의 소멸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데서 고통은 사라집니다.